

내란 100일의 대가

2024.12.3 - 2025.3.13



내란 100일의 대가

2024.12.3 – 2025.3.13

인사말

이 한 주 민주연구원장 **1**

100일의 기록

2024.12.3 - 2025.3.13 **3**

계엄(戒嚴)의 대가

1. 주식, 시가총액 144조원 소멸 **7**
2. 외국인, 코스피 1조원 순매도 **8**
3. 환율, 계엄 즉시 2.9% 상승 **9**
4. 코인, 계엄 즉시 60% 하락 **10**
5. 소비자심리, 낙관에서 비관으로 **11**
6. 기업심리, 비관에서 절망으로 **12**
7. 사라진 연말 특수 **13**
8. '24년 성장률, 2.2% → 2.0% **14**
9. 세수결손, 31조원으로 확대 **15**
10. 민주주의, 완전에서 결함으로 **16**

- 11. 국가신용등급, 비상 **17**
- 12. 진보-보수 갈등, 가장 심각 **18**

내란(內亂)의 대가

- 1. 정치갈등, 국민 95% 심각 **20**
- 2. 국정공백, 누가 트럼프를 상대하나 **21**
- 3. 내란의 성장률 충격, 최소 0.4%p **22**
- 4. '25년 성장률, 1.9% → 1.5% **23**
- 5. 소비자물가, 다시 2%대로 **24**
- 6. 탄핵·관세, 시작된 인플레이션 **25**
- 7. 생산·소비·투자, 트리플 감소 **26**
- 8. 외환보유액, 4,100억달러 밑으로 **27**
- 9. 자영업자, 벼랑 끝으로 **28**
- 10. 중소기업, 위기 가중 **29**
- 11. 대기업, 불확실한 미래 **30**
- 12. 청년일자리, 코로나 이후 최대폭 감소 **31**
- 13. 이공대, 앞친 데 덮친 격 **32**
- 14. 땅에 떨어진 사법 권위 **33**

인사말



오늘은 비상계엄 이후 100일째 되는 날입니다.

우리는 지금 값비싼 대가를 치르고 있습니다.

정치는 탄핵 찬성과 반대 양극으로 갈라졌습니다.

경제는 금융시장 충격과 저성장의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민생은 소상공인, 청년, 기업 모두 벼랑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정치는 갈등의 소용돌이에 빠졌습니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한 차례 불성립시켰습니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까스로 통과되고 윤석열이 내란죄로 구속됐지만,
윤석열 세력과 국민의힘은 비상계엄 정당화로 국민을 현혹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지지자 수십 명이 법원에 침입하고 경찰에 테러를 가했으며,
윤석열이 석방되면서 분열과 갈등은 극한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국민의 96%가 현재 정치 갈등이 심각하다고 응답했습니다.

경제는 불확실성과 저성장의 블랙홀에 빠졌습니다.

환율은 비상계엄 직후 1,400원대에서 1,440원대로 뛰었습니다.

가상자산도 계엄 직후 잠깐이지만 절반 이상 폭락했습니다.

외국인은 계엄 후 3거래일 동안 1조원의 코스피 주식을 팔았습니다.

한국은행은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1.9%에서 1.5%로 낮쳤습니다.

소비심리도 급락했고, 기업심리도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최저 수준입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우리나라의 반도체·자동차에 대한 관세 부과를 선언했지만,
적극적으로 대응할 리더십이 없습니다.

대기업도 미래를 장담할 수 없어 채용 계획을 대폭 줄이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경기 회복을 위한 추경을 제안했지만,
기획재정부는 요지부동입니다.

민생은 절망의 늪에 빠졌습니다.

자영업자는 계엄으로 취소된 연말 회식에 망연자실했습니다.

청년들은 2년 넘는 마이너스 일자리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윤석열이 집권하는 2년 동안 부자는 더 부자가 됐고

빈자는 여전히 가난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공대는 R&D 예산이 삭감된 가운데, 의대정원 갈등이 장기화되면서

우수 인력이 대거 의대로 빠져나가 인력 공백이 걱정입니다.

소비자물가는 다시 2%대로 올라 우리 삶 전반을 누르고 있습니다.

추운 날씨에 더해, 가스비 인상까지 겹치면서 난방비 폭탄을 맞았습니다.

**민주연구원은 2024년 12월 3일부터 2025년 3월 13일까지 100일 동안
국민들이 겪었을 가장 큰 고통과 고충을 보고서에 담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이 핸드북은 온전히 국민을 위한 것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조만간 탄핵심판 선고를 내릴 것입니다.

탄핵이 인용되고 대선이 시작되어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되더라도,

국민들의 경제적 어려움과 깊은 상처는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새로운 대통령이 내란의 값비싼 대가를 오롯이 기억하길 바랍니다.

새로운 리더십이 민생회복과 경제성장에 앞장서길 바랍니다.

새로운 대한민국을 염원합니다.

2025년 3월 13일
민주연구원장 이한주

100일의 기록

2024년

12/3(화) d-day

22시 윤석열, 비상계엄 선포

23시 계엄사령부, 포고령 발표

12/4(수) d+1

01시 국회,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가결 (190명 찬성)

04시 윤석열, 계엄해제 수용 및 비상계엄령 철회

14시 야6당, 1차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12/6(금) d+3

美 포브스, "윤석열은 한국의 GDP 킬러"

12/7(토) d+4

10시 윤석열, 대통령 임기 국민의힘에 일임 발표

21시 국회,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투표 불성립 (195명 참석)

12/8(일) d+6

여당대표·국무총리, 탄핵 대안 과도정부 체제 발표

12/12(목) d+9

국회, 2차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12/14(토) d+11

국회,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204명 찬성)

12/24(화) d+21

한은, 소비자심리지수 급락 발표

12/27(금) d+24

국회,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안 가결 (192명 찬성)

12/31(화) d+28

최상목 권한대행, 헌법재판관 2인 임명

2025년

1/14(화) d+42

헌재, 대통령 탄핵 심판 변론 시작

1/19(일) d+47

윤석열, 서울구치소 구속

윤석열 지지자, 서울서부지방법원 침입 및 경찰 테러

1/26(일) d+54

검찰,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윤석열 구속 기소

2/25(화) d+84

헌재, 11차 변론을 끝으로 변론 종결

한은, 계엄·탄핵 영향으로 성장률 하향 조정 (1.9% → 1.5%)

2/27(목) d+86

헌재, 헌법재판관 1인 불임명 위헌 판단

3/4(화) d+91

정부, 1월 생산·소비·투자 트리플 감소 발표

3/5(수) d+92

트럼프, “한국은 관세 4배 받으면서 우리가 군사 지원” 발언

3/7(금) d+94

법원, 윤석열 구속 취소 결정

3/8(토) d+95

검찰, 즉시항고 포기 및 윤석열 석방

3/13(목) d+100

계엄(戒嚴)의 대가

2024년 겨울

주식, 시가총액 144조원 소멸
외국인, 코스피 1조원 순매도
환율, 계엄 즉시 2.9% 상승
코인, 계엄 즉시 60% 하락
소비자심리, 낙관에서 비관으로

기업심리, 비관에서 절망으로
사라진 연말 특수
'24년 성장률, 2.2% → 2.0%
세수결손, 31조원으로 확대
민주주의, 완전에서 결함으로

국가신용등급, 비상
진보-보수 갈등, 가장 심각

01 주식, 시가총액 144조원 소멸

국민의힘이 1차 탄핵을 무산시키면서 시총 144조원 감소
2차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서 시가총액 거의 회복

- 1차 대통령 탄핵소추 불성립으로 시총 144조원 소멸 (코스피 113조, 코스닥 31조)
 - 윤석열 : 탄핵소추 불성립 → 불확실성 증폭 → 외국인 이탈 → 시총 급락
 - 박근혜 : 탄핵소추 가결 → 불확실성 제거 → 외국인 안정 → 시총 회복
- 탄핵소추가 가결되면서 시총 회복. 탄핵인용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시총 증가
 - '25.3.7. 시가총액 2,466조원까지 회복(사건당일대비 +76조원)

< 탄핵과 주식 시가총액(조원) : 박근혜 vs. 윤석열 >

박근혜(2016년)			윤석열(2024년)		
사건	시가 총액	누적 증감액	사건	시가 시총	누적 증감액
태블릿PC사건 당일(10/24)	1,500	-	비상계엄사건 당일(12/3)	2,391	-
사건 다음날	1,468	-32	사건 다음날	2,355	-36
탄핵발의 다음거래일	1,462	-38	1차 탄핵발의 다음날	2,334	-56
			1차 탄핵 불성립 다음거래일	2,246	-144
탄핵소추 가결 다음거래일	1,508	+8	2차 탄핵소추 가결 다음거래일	2,387	-3
탄핵 인용 당일	1,554	+54	'25.3.7. (탄핵 인용 전)	2,466	+76

주: 1.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 시가총액 증가 합산

2. 누적증감액은 사건 당일 주식 시가총액을 기준으로 계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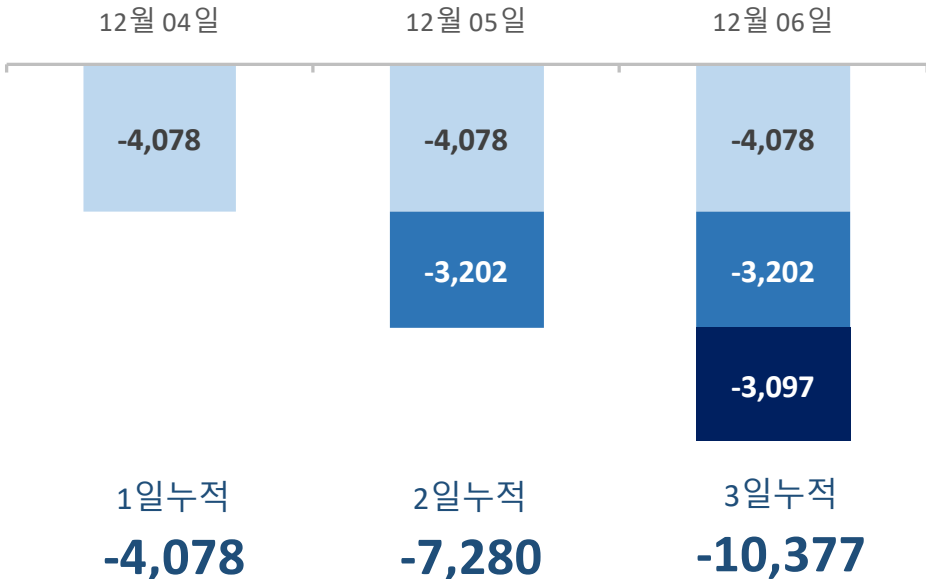
자료: 금융투자협회, 종합통계 포털 자료를 이용해 민주연구원 분석

02 외국인, 코스피 1조원 순매도

계엄 이후 외국인 주식시장 이탈 가속 VIX 지수, CDS 프리미엄 모두 급등

- 외국인 1조원 주식 순매도 → 한국금융시장에 대한 불안(변동성) 가중
- 코스피 VIX 지수* : (12/3) 19.07 → (12/4) 21.34 < 11.9% 급등 >
 - * 미국 S&P 500 지수 옵션과 비교한 변동성을 측정하는 지수
- CDS 프리미엄(5년물, bp)* : (12/3) 34.08 → (12/4) 35.58 < 4.4% 증가 >
 - * 사고가 일어날 확률이 높아지면서 수수료 증가

< 외국인 코스피 순매도 누적 규모(억원) : '24.12/4 ~ 12/6 >



자료: 한국거래소, KRX 증시 Brief 자료를 이용해 민주연구원 분석

03 환율, 게임 즉시 2.9% 상승

게임 직후 대미환율 2.9%, 대유로환율 1.7% 각각 상승

게임전 1,403원/달러 → 게임후 1,444원 → 해제후 1,41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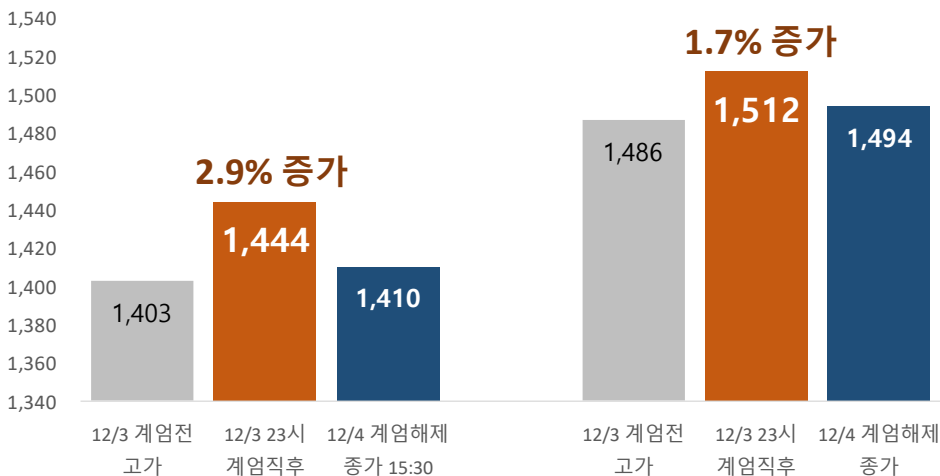
- 대미환율, 롤러코스터 장세

- 트럼프가 당선된 11/7부터 상승하여 1,400원대 형성
- 비상게임 전 1,403원(고점)에서 게임 직후 1,444원까지 상승
- 비상게임 해제 이후 환율이 안정되어 15:30 종가 1,410원까지 하락

- 대유로환율, 상대적으로 변동성 작았으나 1.7% 상승

※ 2025년 2월 평균환율 : 1,445.6원/달러, 1,505.4원/유로

< 비상게임의 환율 충격 : '24.12/3 ~ 12/4 >



< 대미환율(원/달러)>

< 대유로환율(원/유로)>

자료: 한국은행, ECOS 자료를 이용해 민주연구원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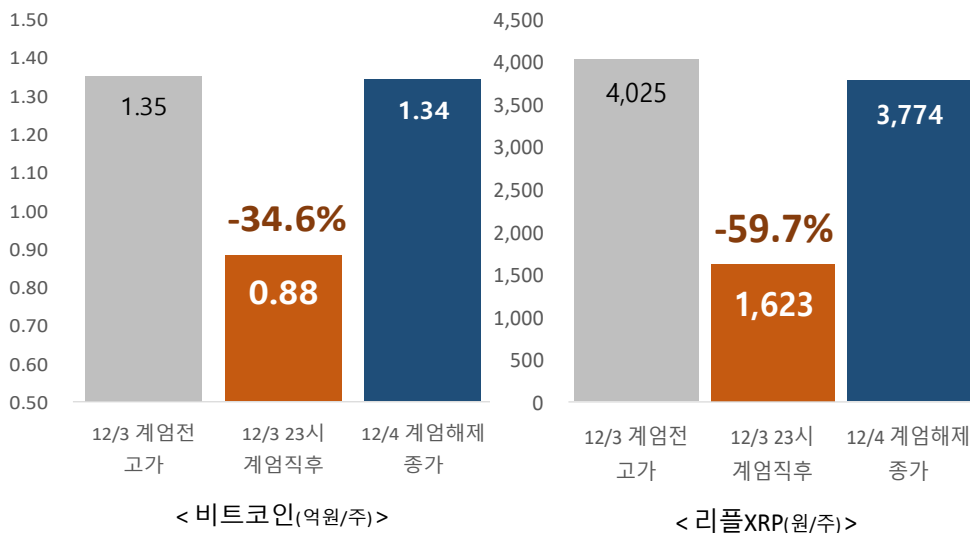
04 코인, 게임 즉시 60% 하락

원화시장 비트코인 한때 35% 하락

한국인이 사랑하는 리플(XRP) 60%까지 하락

- 코인 시장은 24시간 운용되고 변동성이 큰 자산 항목으로, 단기 충격에 가장 빠르게 반응. 코인시장 현황은 원화거래소 업비트 기준
- **비트코인** : 게임 직후 1.35억원에서 0.88억원으로 **35% 하락**
국회의 게임 해제 가결 이후 1.34억원으로 빠르게 회복
- **리플XRP** : 게임 직후 일시적으로 **59.7% 하락**
비상게임 해제 이후 평시보다 6.2% 낮은 수준까지 회복

< 비상게임의 코인시장 충격 : '24.12/3 ~ 12/4 >



주: 업비트(원화거래소)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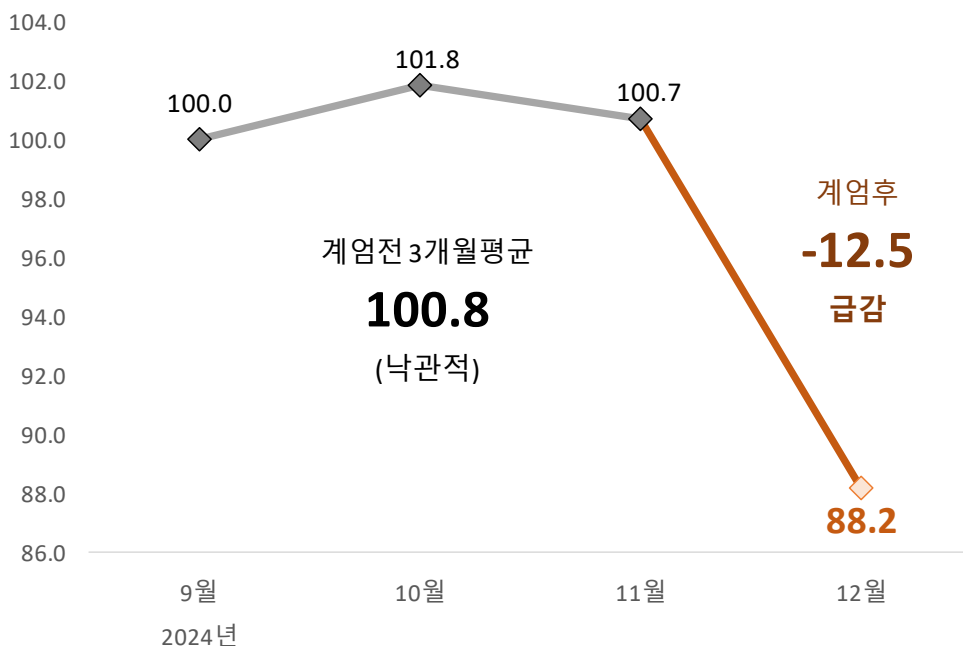
자료: 네이버페이 증권 자료를 이용해 민주연구원 분석

05 소비자심리, 낙관에서 비관으로

계엄에 얼어버린 소비자심리, 12월 12.5포인트 급락
계엄 전후 지수 변화 : 100.8 (낙관적) → 88.2 (비관적)

-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비상계엄을 기점으로 12.4% 급감
: (계엄前 3개월 평균) 100.8 → (계엄後 12월) 88.2
* 장기평균치('03.1월~'23.12월)를 기준값 100으로 설정
- 향후경기전망(-28.2%), 현재경기판단(-27.1%), 취업기회전망(-20.4%) 등 세부 심리지수가 계엄 이후 모두 비관 하락. 1년 후 물가수준(2.7%)도 상승 염려

< 전체 소비자심리지수 : '24.9월 ~ 12월 >



주: 장기평균치 100을 기준으로, 100보다 크면 낙관적, 작으면 비관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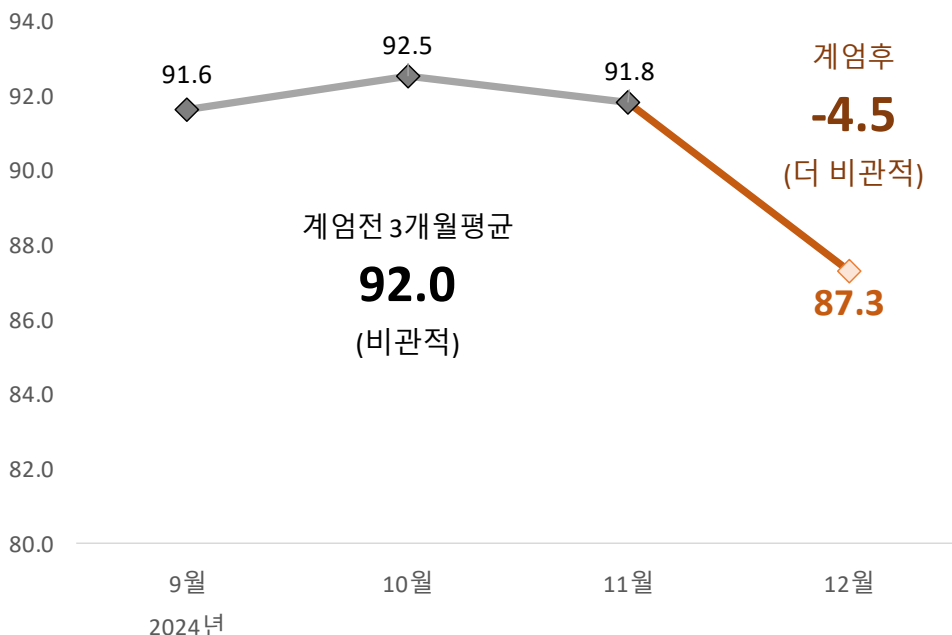
자료: 한국은행, ECOS 자료를 이용해 민주연구원 분석

06 기업심리, 비관에서 절망으로

계업 이후 기업심리지수 급락 후 비관심리 확대 '25년 이후에도 기업심리지수 계속 악화

- 전산업의 기업심리지수(CBSI)*는 비상계업 직후 12월 **4.9% 하락**
 - * 기업들의 심리를 종합적으로 판단하기 위한 지수
- 기업심리지수는 2025년 1월 이후에도 지속 하락 : (1월) 85.9 → (2월) 85.3
: (계업前 3개월 평균) 92.0 → (계업後 3개월 평균) 86.2
- 3개월 평균 기준 제조업(-3.2%, 91.7 → 88.7)보다 **비제조업(-8.5%, 92.1 → 84.3)**의 심리지수가 더욱 비관적으로 변화

< 전산업 기업심리지수 : '24.9월 ~ 12월 >



주: 100을 기준으로, 100보다 크면 낙관적, 작으면 비관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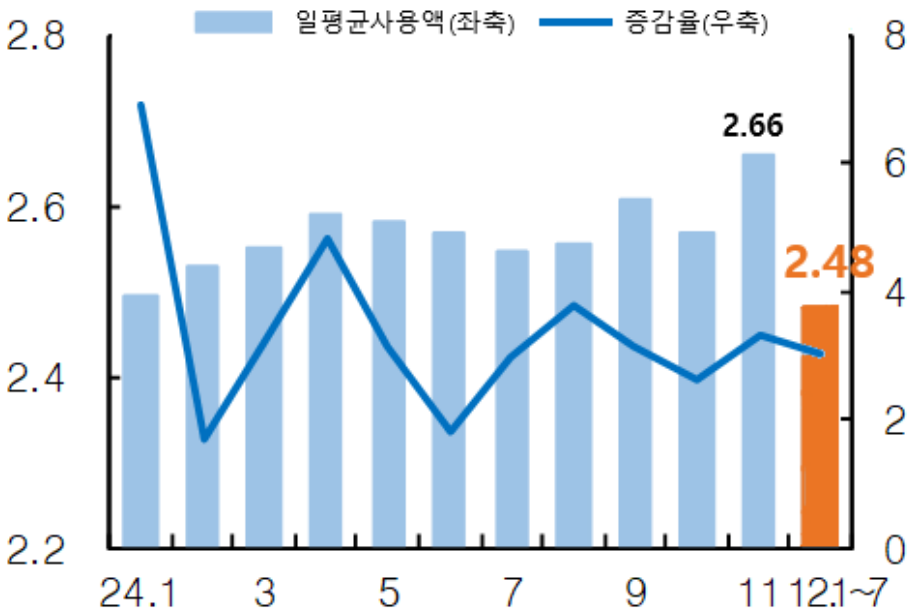
자료: 한국은행, ECOS 자료를 이용해 민주연구원 분석

07 사라진 연말 특수

계엄 직후 신용카드 사용액 일평균 1,800억원 감소 고소득층은 '24.4분기에 지갑을 닫았다

- 비상계엄 직후 일평균 신용카드 사용액 **6.7% 감소**
 - ('24.11월) 2.66조원 → ('24.12.1~7일) 2.48조원 <일평균 1,800억원 감소>
- '24년 4분기, 저소득층은 전년동기대비 많이 소비했고 고소득층은 소비 축소
 - : 소득하위 1분위 8.0%, 2분위 2.7%, 3분위 6.1%, 4분위 1.4%, 5분위 -0.3%
 - 1분위 : 주류·담배(17.3%), 의류·신발(16.6%), 주거·수도·광열(10.8%) 등 소비 증가
 - 5분위 : 교통(-25.9%, 차구입 감소), 주류·담배(-12.9%), 교육(-5.2%) 등 감소
- * 통계청, "2024년 4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 2025.2.27.

< 신용카드 일평균 사용액(조원) : '24.1월 ~ 12월 >



자료: 한국은행, "비상계엄 사태 이후 금융·경제 영향 평가", 2024.12.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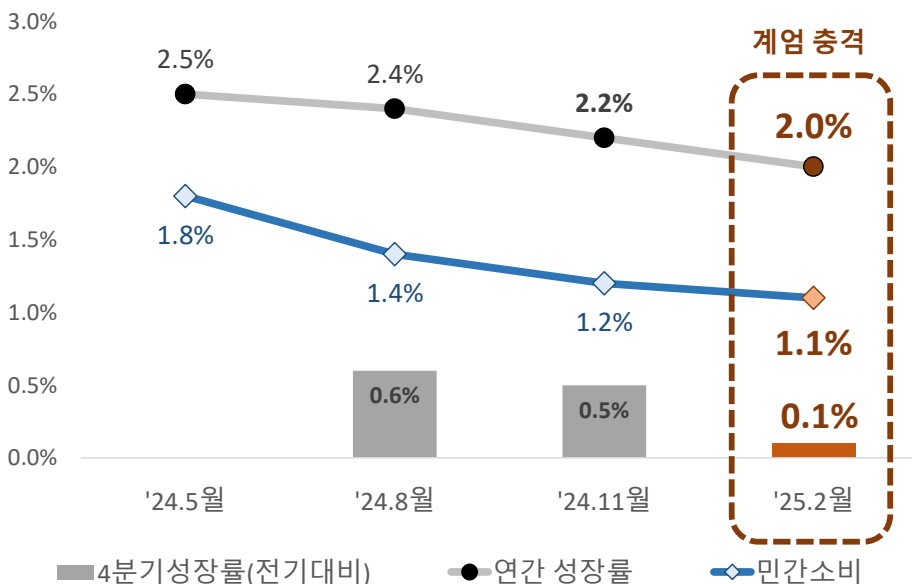
08 '24년 성장률, 2.2% → 2.0%

한은 전망치 : ('24.11.28) 2.2% → ('25.2.25) 2.0%

비상계업 충격이 4분기 성장률 끌어내림 : 0.5% → 0.1%

- 한국은행은 2024년 11월 말 2024년 경제성장률을 **2.2%**로 전망
- 한은 전망 이후 6일 뒤 발생한 12월 3일 비상계업 충격에 의해 12월 성장률(전기대비)이 0.5%에서 0.1%로 하락
 - 연간 성장률 **2.0%**로 하향 조정
- 세부항목 증감폭 : 민간소비 -0.1%p, 건설투자 -1.4%p, 설비투자 0.3%p 등

< 비상계업 충격에 의한 '24년 성장률 하락 >



자료: 한국은행, 경제전망보고서 자료를 참조해 민주연구원 분석

09 세수결손, 31조원으로 확대

'24년 세수결손 : (계엄前) 29.6조원 → (계엄後) 30.8조원
법인세 7천억원, 부가가치세 1조 5천억원 추가 결손

- 기획재정부가 작년 9월말에 예측한 2024년 세수결손 규모는 **29.6조원**
- 비상계엄 충격으로 인해 세수결손 규모가 **30.8조원으로 1.2조원 증가**
 - 상속증여세가 정부 재추계치보다 1.2조원 증가하면서 세수결손 일부 상쇄
 - 법인세(-0.7조원), 부가가치세(1.5조원)가 정부 전망 후 추가로 감소
- 전년동기대비 국세수입 증가효과가 11월 개선됐다가 12월 다시 위축
: (9월) -1.9조원 → (10월) -0.4조원 → (11월) 3.1조원 → (12월) 1.0조원
- 결손 대응 : 외평기금 4조원, 주택도시기금 3.2조원 등 기금·특별회계 17조원
일반회계 불용 6조원, 교부세 배정 유보 8조원

< 비상계엄 충격에 의한 세수결손 확대(조원) >

	세수재추계 (A, '24.9.26.)	최종 실적 (B, '24.12.31.)	차이 (B-A)
총국세	-29.6	-30.8	-1.2
법인세	-14.5	-15.2	-0.7
소득세	-8.4	-8.3	0.0
이외 세목	-8.5	-8.7	-0.2
상속증여세	-0.5	0.6	1.2
부가가치세	2.3	0.8	-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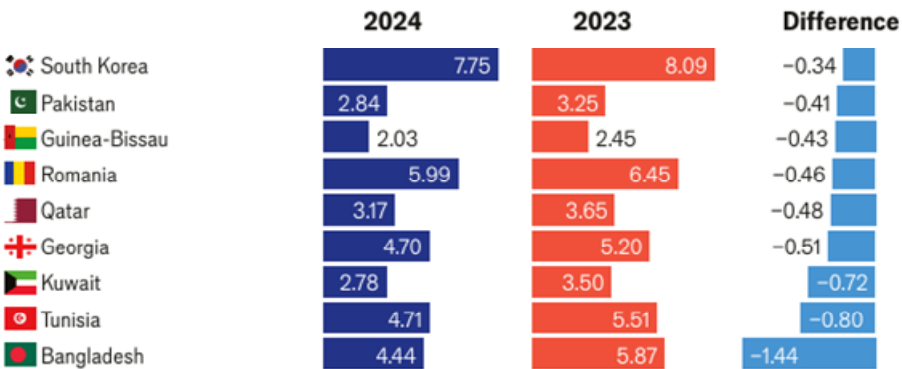
자료: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금년 국세수입은 예산대비 △29.6조원 예상", '24년 연간 국세 수입 실적"를 이용해 민주연구원 분석

10 민주주의, 완전에서 결함으로

민주주의 지수 세계순위 : ('23년) 22위 → ('24년) 32위
'06년 발표 이후 가장 낮은 “결함 있는” 민주주의 지수

- 민주주의 지수(EIU*의 DI : Democracy Index) 0.34포인트 하락
 - 2023년 : 8.09, “완전한(full) 민주주의”, 세계 22위
 - 2024년 : 7.75, “결함 있는(flawed) 민주주의”, 세계 32위
- * 英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EIU)에서 발표
- 정부기능(8.57 → 7.50)과 정치문화(6.25 → 5.63) 모두 크게 하락

< 민주주의 지수가 가장 많이 떨어진 10개국(10점 만점) : '24년 >



< 한국의 민주주의 지수 세부항목(10점 만점) : '24년 >

	Overall score	Rank	Change in rank from previous year	I Electoral process and pluralism	II Functioning of government	III Political participation	IV Political culture	V Civil liberties
Chile	7.83	29	-4	9.58	7.86	6.67	5.63	9.41
Slovenia	7.82	30	1	9.58	7.50	7.22	6.25	8.53
Israel	7.80	31	-1	9.58	7.50	9.44	6.88	5.59
South Korea	7.75	32	-10	9.58	7.50	7.22	5.63	8.82
Latvia	7.66	33	4	10.00	7.14	6.67	6.25	8.24

자료: EIU, “Democracy Index 2024”, 2025.2

11 국가신용등급, 비상

국제 신용평가사, “정치적 불확실성이 장기화되면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에 부정적 영향 가능성”

- 비상계엄을 바라보는 외국 언론사

- 로이터통신, “민주주의에 충격”
- 美 워싱턴포스트, “민주주의 국가로 인정받는 한국의 이미지 손상 가능성”
- 美 뉴욕타임스, “군사독재 이후 첫 계엄령”, “정치적 격변과 불확실성”
- 英 BBC, “윤석열의 절박한 정치적 고민에서 비롯된 것”
- 英 이코노미스트, 한국 결함 있는 민주주의로 강등

- 정부 스스로 국제 이미지 하락에 대한 총력 대응

- 유상임 과기부장관, “계엄 이후 대외 신뢰도 문제 심각”(‘24.12.23.)
- 최상목 권한대행, “대외신인도 절대 흔들려선 안 돼”(‘25.1.13.)

- 피치, 2025년 2월, 한국 국가신용등급 ‘AA-’ 유지

- 다행히 국제신용등급 안정적 유지. 다만 한국 성장률 2.0%에서 1.7% 하향
- 국제 신용평가사, “정치적 불확실성 장기화될 경우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에 부정적인 영향 가능성 경고”
- 무디스는 2024년 12월 최근 프랑스의 정치적 불안을 이유로 국가신용등급을 1단계 강등(Aa2 → Aa3)

- 국가신용등급 하락이 실물경제에 미치는 경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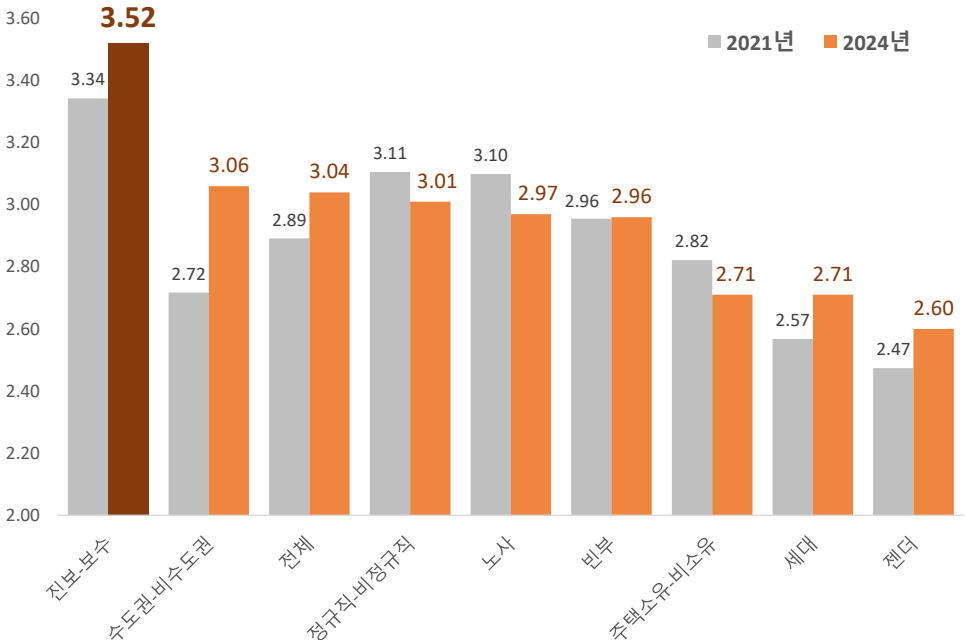
- ① 국채금리 상승 → 금융기관 자금조달비용 상승
- ② 외국인 투자 회수 → 국내 증시 하락
- ③ 환율 상승 → 수입품가격 상승 → 물가 상승

12 진보-보수 갈등, 가장 심각

'24년 국민들이 가장 우려하는 갈등, "진보-보수" 탄핵 과정에서 갈등 증폭 예상

- 높아지는 사회갈등도(4 매우 심각, 3 심각, 2 심각하지않음, 1 전혀 심각하지않음)
: '21년 2.89 → '22년 2.85 → '23년 2.93 → '24년 3.04
- 골이 깊은 갈등 항목 순(2024년)
: **진보-보수(3.52)** > 지역권-비수도권(3.06) > 정규직-비정규직(3.01)
> 노사(2.97) > 빈부(2.96) > 주택소유-미소유·세대(2.71) > 젠더(2.60)
- 진보-보수 갈등은 '21년 3.34에서 계속 증가. 비상계엄 후 추가 증가 예상

< 사회갈등도 변화 : '21년 ~ '24년 >



주: 19~75세 국민 3천명을 대상으로 매년 6~8월 조사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사회통합 실태진단 및 대응방안"를 이용해 민주연구원 작성

내란(內亂)의 대가

2025년 겨울

정치갈등, 국민 95% 심각
국정공백, 누가 트럼프를 상대하나
내란의 성장률 충격, 최소 0.4%p
'25년 성장률, 1.9% → 1.5%
소비자물가, 다시 2%대로

탄핵·관세, 시작된 인플레이션
생산·소비·투자, 트리플 감소
외환보유액, 4,100억 달러 밑으로
자영업자, 벼랑 끝으로
중소기업, 위기 가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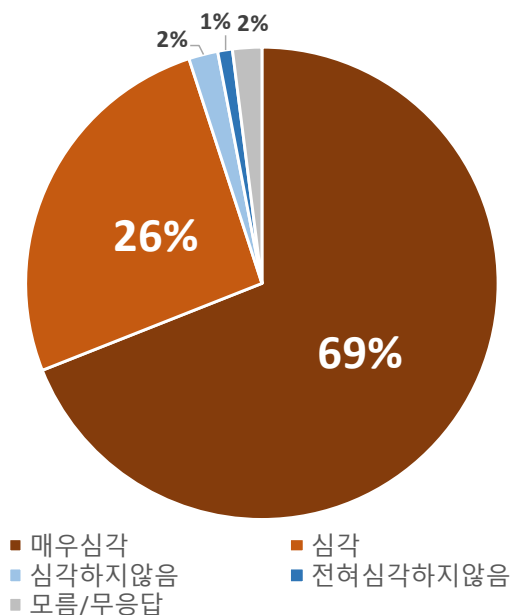
대기업, 불확실한 미래
청년일자리, 코로나 이후 최대폭 감소
이공대, 앞친 데 뺏친 격
땅에 떨어진 사법 권위

01 정치갈등, 국민 95% 심각

현재 정치갈등, 매우심각 69%, 심각 26%, 괜찮다 3%
그래도 차기 대통령이 갈등을 해소할 수 있다 42%

- 차기 대통령이 갈등 해소에 성공할 수 있을까?
: 어렵다 50% > **가능하다 42%** > 모름/무응답 8%
- 갈등이 심각하다고 응답한 인원의 **최소 40%***는 '갈등이 심각하지만 **그래도 다음 대통령이 해결할 수 있다**'는 기대감을 보인 것으로 해석 가능
 - * '심각하지않다' 응답자 3%가 모두 '차기 대통령의 갈등 해소 가능하다'로 응답했을 것으로 가정하고 추론

< 현재 정치 갈등 수준 : '25년 2월 >



주: '25.2.17-19(3일간) 1,000명 조사(응답률 19.8%, 전화면접조사)

자료: 케이스탯리서치, 코리아리서치

02 국정공백, 누가 트럼프를 상대하나

“일본은 이미 정상회담까지 했는데, 우리는 통화도 못해” 한국을 향한 트럼프의 계속되는 경제 압박 고조

- 美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한국 관련 발언

- “자동차와 반도체, 의약품에 대한 관세를 한 달 안에 발표할 예정이다”

I'm going to be announcing tariffs on cars and semiconductors and chips and pharmaceuticals over the next month or sooner.

(2025.2.19. Future Investment Initiative Priority Summit 연설)

- “한국은 미국의 군사 지원을 받으면서, 미국의 4배 높은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South Korea's average tariff is four times higher. And we give so much help militarily and so many other ways to South Korea.

(2025.3.4., 美의회 상-하원 합동 연설)

- “반도체 지원법*을 모두 없애야 한다”

Get rid of the CHIPS Act, a horrible, horrible thing.

(2025.3.4., 美의회 상-하원 합동 연설)

* 칩스법에 따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각각 6.9조원, 0.7조원 혜택 계약

- 미일 정상회담이 2월에 개최됐고 트럼프는 김정은과 연락을 재개 의사 발표

- 美-日 정상회담, 트럼프 대통령, 아시바 총리, 2025.2.7. 미국 백악관
- “김정은과 다시 연락하고, 미북 정상외교 가능”, 2025.1.23. 폭스뉴스 대담

- 현재 한국은 트럼프 외교방식을 고려하면, ‘정상 외교 불능’ 상태로 평가

- 트럼프는 정상 간 톱다운(Top-down) 실리외교 선호
- 우리나라 대통령 권한대행은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를 하지 못한 가운데, 향후 트럼프의 관세 및 군사비 압박이 더욱 거세질 전망

03 내란의 성장률 충격, 최소 0.4%p

“윤석열은 대한민국 GDP 킬러”

정책 불확실성 지수 3.2배 상승 : 123 → 397

- 비상계엄·탄핵정국의 경제적 충격 : 0.4 ~ 1.0%p (민주연구원, 2024.12.13.)
 - 실업률 0.3~0.6%p↑, 소비 0.2%p↓, 투자 0.8~1.2%p↓
- 우리나라 경제성장사 72년 동안, 윤석열 정부가 하위 6위, 7위, 8위
- 외신의 비상계엄에 따른 경제적 충격 비판
 - 美 포브스, 2024.12.6., “윤석열은 대한미국의 GDP 킬러”
 - 美 블룸버그, 2024.12.9., “한국 증시, 원화 정치적 위기 심화에 폭락”

< 윤석열 정부 경제성장률 성적표 >

하위 순위	경제 성장률	연도	당시 주요사건
1	-5.1%	1998년	1997년 말 외환위기, IMF 구제금융
2	-1.6%	1980년	2차 석유파동, 민주화운동과 비상계엄
3	-0.7%	2020년	코로나19위기
4	0.6%	1956년	비상경계령, 한미 갈등
5	0.8%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6	1.4%	2023년	윤석열 정부
7	1.5%	2025년	윤석열 정부, 비상계엄·탄핵 불확실성
8	2.0%	2024년	윤석열 정부, 비상계엄 충격

주 : 1. 1953~2025년 72개년을 기준으로 분석
2. 비상계엄 전 한국은행 경제성장률 전망치('24.11.28, '25년 1.9%) 기준 전망
자료: 민주연구원(2024.12.13.), “윤석열 비상계엄의 경제적 충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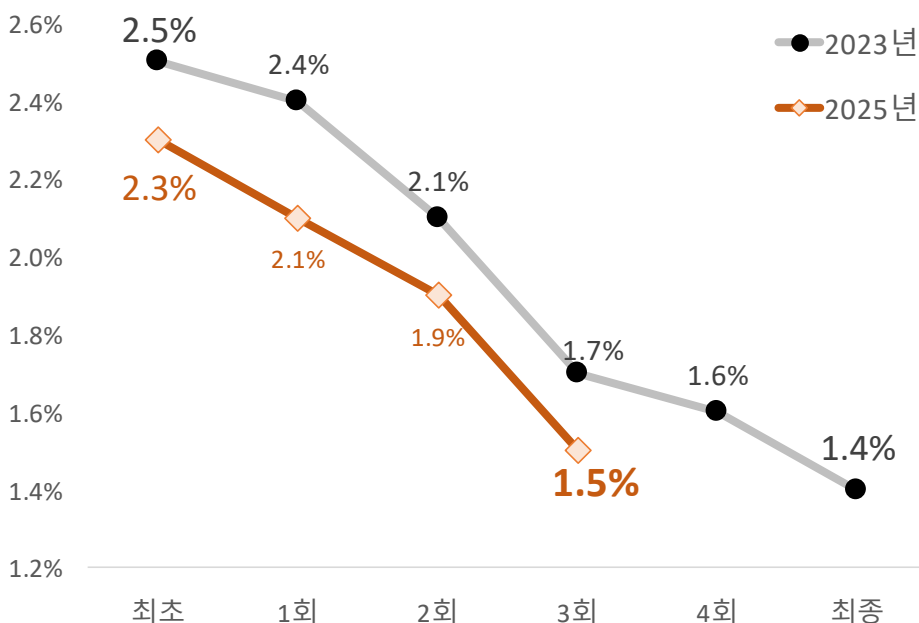
04 '25년 성장률, 1.9% → 1.5%

한국은행 성장률 전망치 이미 3번 하향 조정

최악의 경우 1.4%로 추락, 2023년 1.4%와 판박이 경로

- 한국은행은 2월 25일 비상계엄에 따른 경제적 충격 0.4%p를 반영한 올해 성장률 1.5% 발표
 - : 민간소비 0.6%p 하락(2.0% → 1.4%), 재화수출 0.6%p 하락(1.5% → 0.9%)
 - : 설비투자 0.4%p 하락(3.0% → 2.6%), 건설투자 1.5%p 하락(-1.3% → -2.8%)
- 이창용 한은 총재, "최악의 경우 1.4%까지 낮아질 수 있다"
- 2023년과 판박이 : 3년연속 저성장뿐만 아니라 3년연속 세수결손 예상

< 한국은행의 성장률 전망치 변화 : '23년 vs. '25년 >



자료: 한국은행, 경제전망보고서 자료를 이용해 민주연구원 정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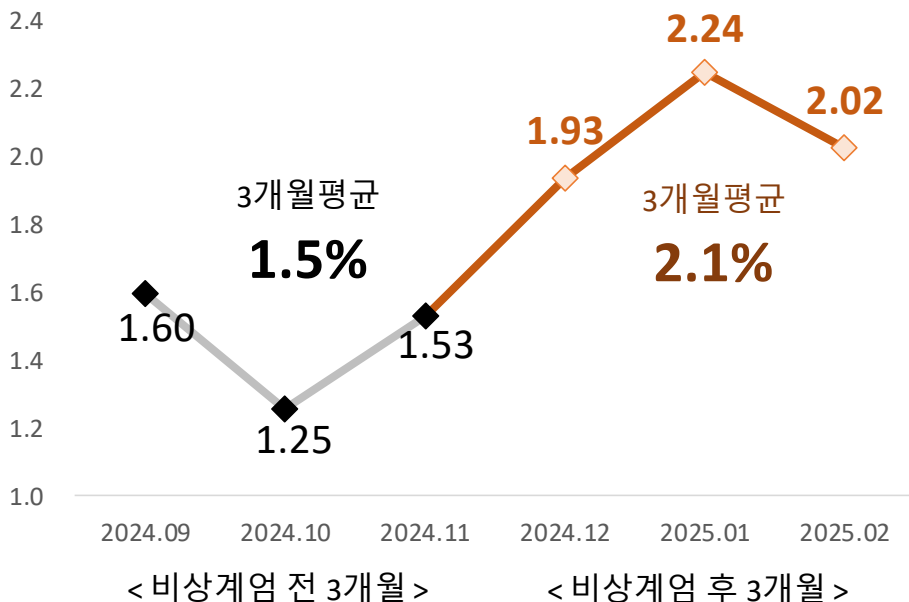
05 소비자물가, 다시 2%대로

총 지 수 : (계엄·탄핵前) 1.5% → (계엄·탄핵後) 2.1%

생활물가 : (계엄·탄핵前) 1.4% → (계엄·탄핵後) 2.4%

- 비상계엄 전후 3개월 평균값을 통해 물가상승률 비교
: 석유류 12.8%p(-8.0% → 4.9%), 공업제품 1.7%p(0.2% → 1.9%) 각각 상승
- 생활물가지수는 비상계엄 전후로 1.4%에서 2.4%로 1.0%p 상승
: 커피 7.5%p(0.6% → 8.1%), 요양시설이용료 3.3%p(3.0% → 6.2%),
탄산음료 5.6%p(-1.7% → 3.9%), 빵 3.7%p(0.1% → 3.8%)
- 석유가격 상승 등 외부요인이 물가상승을 견인한 점도 있으나, 커피·요양시설
이용료·빵 등 생활 밀접 품목에 대한 정부대응 부재도 영향

< 비상계엄 전후 물가상승률(전년동기대비, %) : '24.9월 ~ '25.2월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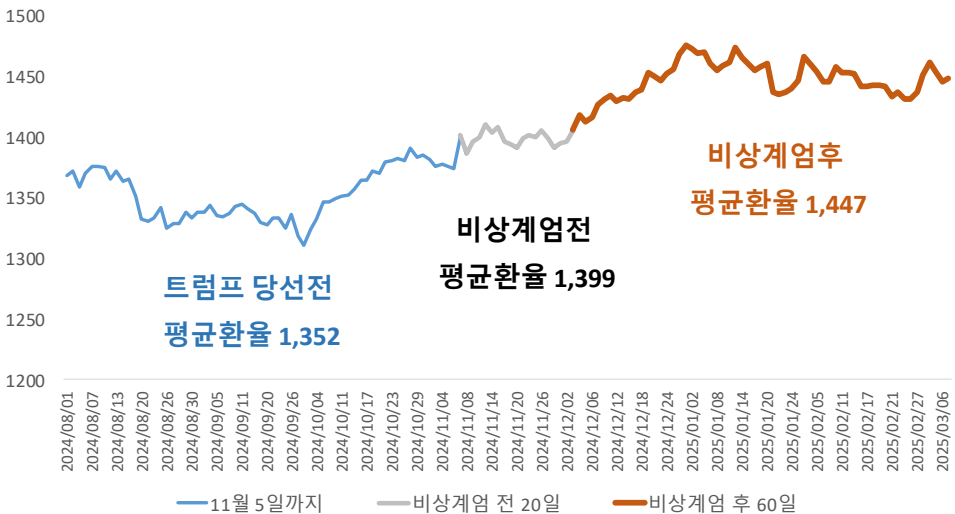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소비자물가지수 자료를 이용해 민주연구원 분석

06 탄핵·관세, 시작된 인플레이션

비상계엄 → 환율상승 → 단기 물가상승률 0.11%p 견인
트럼프 관세부과 → 저성장, 고물가 스태그플레이션 재점화

- 경로 : 계엄·탄핵 불확실성 → 환율상승 → 환율민감품목 가격상승 → **CPI 상승**
 - 대미환율 10% 상승 시 물가상승률 효과*
: (단기민감품목, 1분기 영향) **0.31%p** (장기민감품목, 4분기 영향) 1.30%p
* 한국은행('25.2.25), "환율의 장단기 물가 전가효과 분석"
 - 비상계엄 이후 대미환율 3.5% 상승 : 계엄 전 1,399원 → 계엄 후 1,447원
 - 계엄의 물가상승률 단기충격 추정(민주연) : **0.11%p** = $3.5\% \times 0.31 \div 10$
- 트럼프발 관세 위협에 대한 우리나라 정부의 대비 부족
 - '25.3.3 : 멕시코, 캐나다 25% 관세 시행. 중국 10% 과세 부과 시행
 - '25.3.4 : 트럼프, "한국은 미국의 4배 높은 과세를 부과" 문제점 지적

< 비상계엄 전후 대미환율(원/달러) : '24.8월 ~ '25.3월 >



자료: 한국은행, ECOS 환율 자료를 이용해 민주연구원 분석

07 생산·소비·투자, 트리플 감소

'25년 1월, 생산 -2.7%, 소비 -0.6%, 투자 -3.1~-4.3%
경기전망도 동행 및 선행 모두 하락

- '24년 11월, '25년 1월, 3개 항목 모두 마이너스 기록
 - : '24.11월 생산 -1.2%, 소매판매 -0.7%, 설비투자 -1.7%, 건설투자 -3.1%
 - : '25.1월 생산 -2.7%, 소매판매 -0.6%, 설비투자 -14.2%, 건설투자 -4.3%
 - 세부 항목도 대부분 마이너스
 - 경기전망 : 동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 0.4p 하락 (98.8 → 98.4)
선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 0.3p 하락 (100.7 → 100.4)
- ※ 통계청 산업활동동향조사. 전월대비 지수 기준

< 산업활동동향 : '25년 1월 >



자료: 통계청 보도자료('25.3.4.), "2025년 1월 산업활동동향"을 참고해 민주연구원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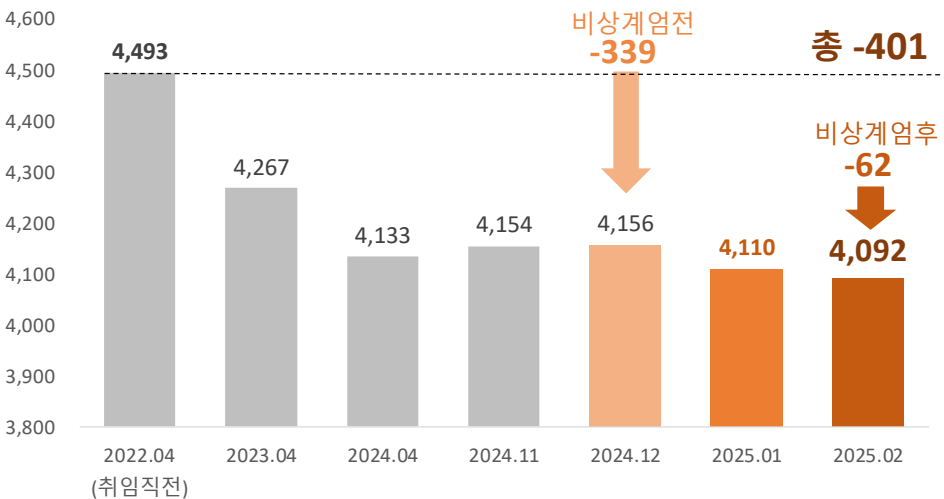
08 외환보유액, 4,100억 달러 밑으로

윤석열 취임 후 34개월 동안 401억 달러 감소

비상계엄 이후 3개월 동안 62억 달러 감소

- '25.2월, 4년 9개월만에 4,100억 달러 밑으로 하락
- 윤석열 취임 이후 2022년 5월부터 2025년 2월까지 34개월 동안, 외환보유액 총 401억 달러(58조원) 감소
 - 비상계엄 이전 31개월 동안 339억 달러 감소 (전체의 84.6%)
 - 비상계엄 이후 3개월 동안 62억 달러 감소 (전체의 15.4%)
- : '24.11월 4,154억 달러 → '25.2월 4,092억 달러

< 외환보유액 변화(억 달러) : '22.4월 ~ '25.2월 >



주: 월말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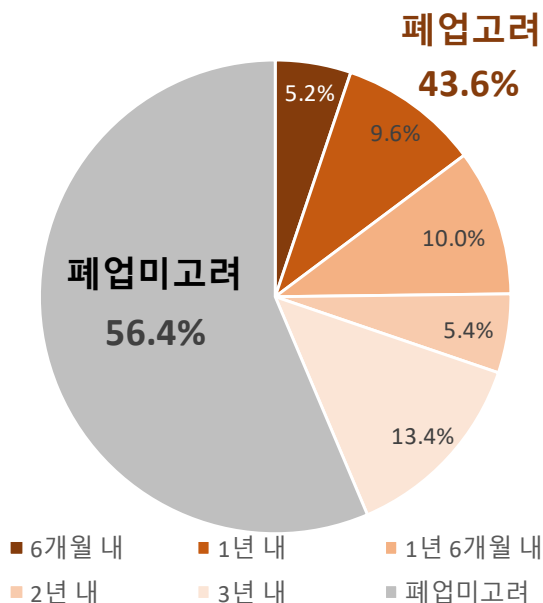
자료: 한국은행 ECOS 자료를 이용해 민주연구원 분석

09 자영업자, 벼랑 끝으로

이미 어려운 자영업자, 윤석열발 소비위축 충격까지
올해 2월, 자영업자 10명 중 4명은 폐업 고려 응답

- 2023년 폐업사업자는 전년대비 119,195명 증가한 **986,487명**
- 2024년 3분기 **개입사업자 대출 1,124조원**
3개월 이상 연체가 발생한 **위험대출자 15만명, 대출액 23조원**
- 자영업자 72.6% 작년보다 매출 감소, 72.0% 작년보다 순이익 감소
자영업자 61.2% 올해 매출은 더 감소, 62.2% 올해 순이익도 더 감소
(한국경제인협회 시장조사, 자영업자 500명 대상, 2025.2.25. 발표)

< 자영업자 폐업 고려 여부 >



자료: 한국경제인협회 보도자료('25.2.25.) "자영업자 2024년 실적 및 2025년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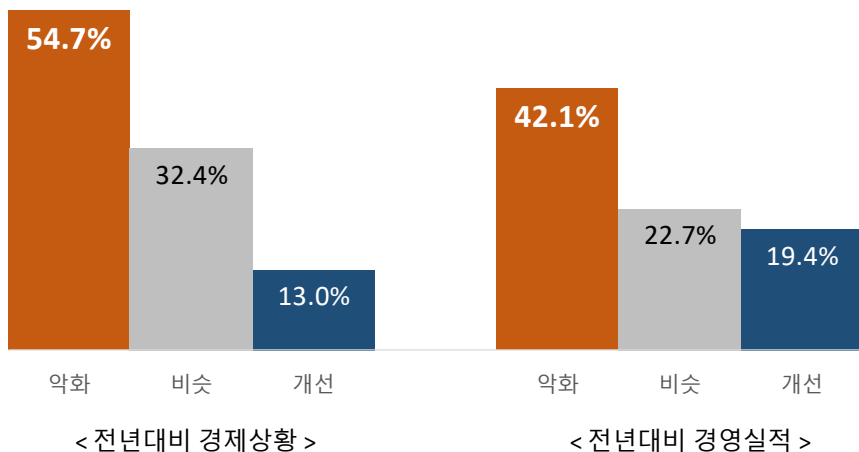
10 중소기업, 위기 가중

올해 경제상황 악화 응답 55%, 경영실적 악화 응답 42%

올해 신규채용 계획없거나 축소 응답 44%

- 중소기업은 올해 경제상황과 경영실적 모두 **비관적 인식**
 - 경제상황 : 작년보다 악화응답(54.7%)이 개선응답(13.0%)보다 41.7% 많았음
 - 경영실적 : 작년보다 악화응답(42.1%)이 개선응답(19.4%)보다 22.7% 많았음
 - 신규채용의 경우 계획이 아예 없거나(32.3%) 줄이는 기업(12.1%)이 **44.4%**
 - 동 비율 : 5~29인 소기업 50.1%, 30~299인 중기업 34.1%
- * 중소벤처기업연구원 : 업력 7년 이상의 중소기업 589개사 설문조사

< 중소기업의 '25년 경제 및 경영 전망 >



주: 국내 5인 이상 중소기업 216곳을 대상으로 2025년 2월 설문조사

자료: 중소벤처기업연구원(2025.3.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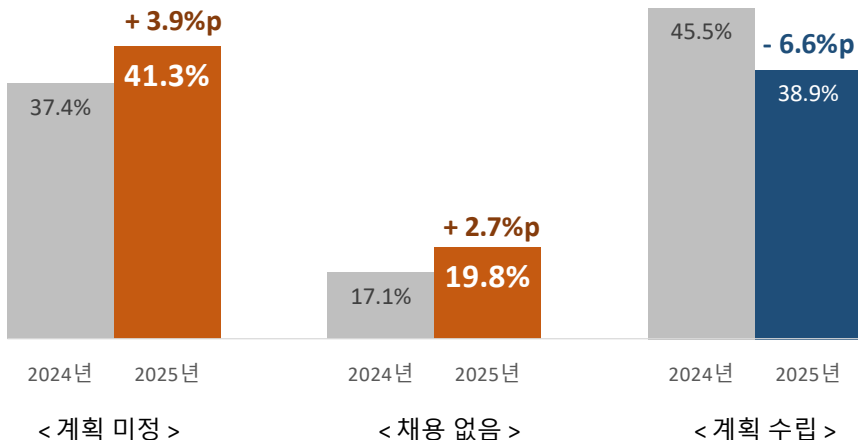
11 대기업, 불확실한 미래

상반기 채용계획 없음 41%, 채용자체 없음 20%

채용부진 이유의 52%가 불확실성 대응을 위한 긴축경영

- 업종별 미채용 및 미계획 기업 비중
: 건설·토목 75% > 석유·화학 74% > 금속 67% > 식료품 64% 등
- 채용 부진 이유
: 불확실성 대응을 위한 긴축경영(52%) > 경기부진(12%) > 고용경직성(9%)
- 신규채용 계획을 수립한 대기업의 전년대비 채용인원 규모
: 유사(59%) > 감소(29%) > 증가(12%)

< 매출액 500대 기업 '25년 상반기 신규채용 계획 >



주: 리서치앤리서치 의뢰

자료: 한국경제인협회 보도자료('25.2.27.) "2025년 상반기 대기업 신규채용 계획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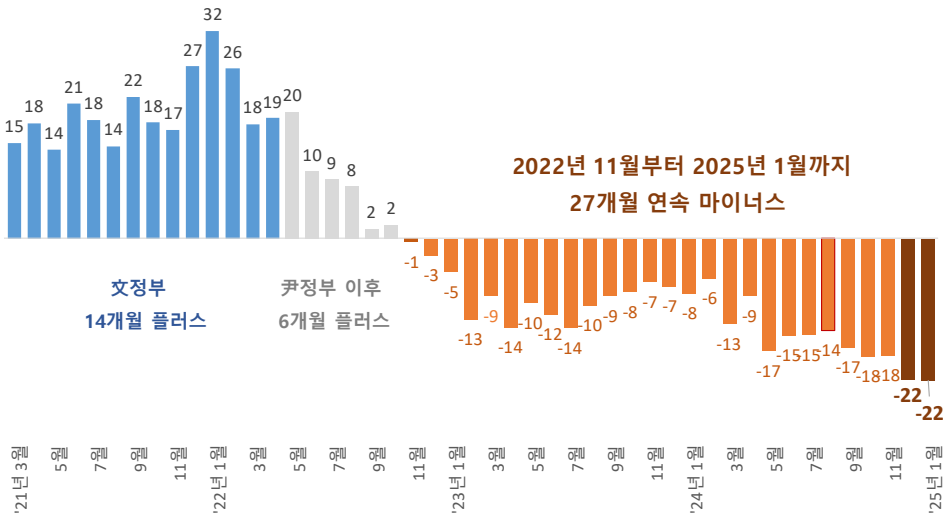
12 청년일자리, 코로나 이후 최대폭 감소

“비상계업 이후 청년의 미래가 더욱 어두워졌다”

전년동기대비 일자리 : '24.12월 -22만명, '25.1월 -22만명

- 문재인 정부 : 2021년 3월 증가로 전환 후 **14개월** 동안 플러스 유지
- 윤석열 정부 : 집권 이후 초반 6개월 동안 증가
2022년 5월 감소로 전환 이후 **27개월** 연속 마이너스 유지
비상계업 이후 청년 취업자수 감소폭은 **작년 12월, 올해 1월**
모두 22만명으로, 코로나 이후 최대폭 감소

< 청년 취업자수 증감(전년동기대비, 만명) : '21.3월 ~ '25.1월 >



주: 15-29세 청년층의 전년동기대비 취업자수 증감인원

자료: 통계청 고용동향 자료를 이용해 민주연구원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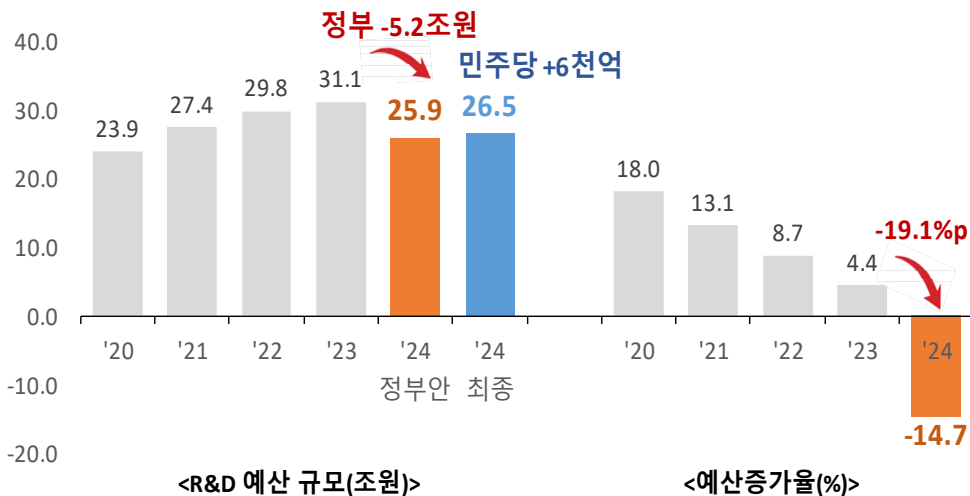
13 이공대, 앞친 데 덮친 격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으로 삭감된 R&D 예산

의대생 2천명 확대의 기회비용 : 이공대 우수인력 의대로

- 윤석열 정부는 과학기술계 카르텔 척결 명목으로 '24년 R&D 예산 삭감
AI 예산도 43%(약 3,894억원) 삭감되는 등 미래를 내다보는 식견 부족
- 의대정원 2천명 확대(3,058명 → 5,058명)에 따른 갈등이 해결되지 않으면서,
이공대에 지원할 우수 인력이 의대로 유출
→ 보이지 않는 기회비용

< '24년 R&D 예산(조원) : 5조원 삭감 >



자료: 기획재정부, "2024년도 예산안", "2024년도 나라살림 예산개요" 이용해 민주연구원 분석

14 땅에 떨어진 사법 권위

“판사 어딤어”, 법원 7층 집무실까지 침입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보기 드문 사법부 테러 사건

- 윤석열 지지자의 사법부 테러 및 경찰 폭행
 - 윤석열, 현직 대통령으로서 헌정 사상 최초로 구속영장 발부
 - 윤석열 지지자 법원 습격 및 점거, 경찰·기자 폭행
 - 서부지방법원 5~7층 판사 집무실에 무단 진입하여 난동
- 경찰 : 137명 수사, 87명 구속, 79명 구속 송치('25.3.10 현재)
 - 경찰관 폭행 6명(공무집행방해)
 - 자동차를 이용해 경찰관 상해 1명(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 서부지방법원 무단 침입 22명(건조물 침입)

< 서울서부지방법원 외벽과 창문 파손 현장 >



자료: 연합뉴스(2024.12.19.)



민주연구원은 더불어민주당의 싱크탱크입니다.

민주연구원은 대한민국과 더불어민주당의 비전과 전략 수립,
민주주의와 서민경제, 그리고 한반도 평화의 가치를 뒷받침하는
정책개발에 매진해왔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정책과 국가전략으로 국민의 삶을 지키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가겠습니다.

윤석열 비상계엄 및 탄핵 평가 핸드북

내란 100일의 대가

2024.12.3 – 2025.3.13

발행처	민주연구원
발행인	이한주
작성자	채은동
인쇄·제본	경성문화사
발행일	2025.3.13.

윤석열 비상계엄 및 탄핵 평가 핸드북

내란 100일의 대가

2024.12.3 - 2025.3.13
